***PRESS INFORMATION***

|  |  |
| --- | --- |
| **보도 일시** | **2024. 12. 6. 배포 시부터 보도** |
| **사진 설명** | **6일 제주시 동제주변환소에서 개최된 ‘완도~제주 간 해저케이블 건설 사업’ 준공식에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왼쪽 세번째)과 김형원 LS전선 에너지/시공사업본부장(왼쪽 두 번째) 등 감사패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문의** | **김광국 과장 (02-2189-9597, 010-4306-5788 ,** [**kimgg@lscns.com**](mailto:kimgg@lscns.com)**) / 뉴스룸(**[**http://news.lscns.com**](http://news.lscns.com)**)** |
| **LS전선, 제주 3연계 해저 케이블 사업 성공적 수행···전력망 혁신 주도**  **■ 완도-제주 90km 해상 연결, 양방향 HVDC 송전망 구축**  **■ 국내 유일한 HVDC 해저 케이블 상용화로 전력망 안정화 기여**  **■ LS마린솔루션과 제조-시공 일괄공급, 시너지 본격화**  LS전선이 LS마린솔루션과 함께 ‘국내 최초 육지-제주 간 전압형 HVDC(고압직류송전)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남 완도와 제주를 연결하는 약 90km의 해저 전력망을 구축하는 제주 3연계 사업으로, 전력망 안정화와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국내 전력 인프라의 도약을 상징한다.  이 사업은 국내에서는 LS전선이 2009년에 수주한 제주 2연계 사업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이다. LS전선은 2020년 한전의 국제 입찰에서 약 2,3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 LS마린솔루션과 함께 해저 케이블의 생산 및 시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HVDC 기술은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으로 생성된 교류 전력을 직류 전력으로 변환해 장거리 대용량 송전을 가능하게 한다. 직류 송전은 전력 손실이 적고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전압형 HVDC는 기존 전류형과 달리 양방향 송전이 가능하여, 불규칙한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연계하고 전력망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HVDC 해저 케이블을 상용화한 기업은 유럽과 일본의 일부에 불과하며, 국내에서는 LS전선이 유일하다.  김형원 LS전선 에너지/시공사업본부장은 “제주 3연계 준공은 한전을 중심으로 LS전선, LS마린솔루션, 건설사 등 국내 기업들이 협력해 이뤄낸 ‘팀코리아’의 성과로, K그리드 기술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중요한 성공 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LS전선은 한전 주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참석하여 6일 제주시 동제주변환소에서 열린 준공식에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 |